보도 자료			
보도일시	'17.10.18(수) 16:00 배포일시 '17.10.17(화) 15:00		
##### JOINFEI 글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이도영 부장(02-397-1321) 차상헌 과장(02-397-1303)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 이주섭 과장(044-215-8510) 김형선·이상용 사무관(044-215-8512·8521) 사회적경제과 김동곤 과장 (044-215-5910) 정민형 사무관(044-215-5911)		
	산업혁신과 최연우 과장(044-203-4220) 신유철·장영빈 사무관(044-4225·4224)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정경훈 과장(044-202-7210) 최승훈·남덕현 사무관(044-202-7212·7215) 고용차별개선과 임영미 과장(044-202-7570) 이경제 서기관(044-202-7572) 노사협력정책과 이창길 과장(044-202-7587) 송유나 서기관(044-202-7588)		
	인재혁신정책과 윤범수 과장(042-481-1661) 이권재 사무관(042-481-1663)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10.18일 14:00**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되었음
 - * 안건은 별도 배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
 - 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임

- ②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
- ③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 ④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2. 기본 방향

- ①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추가·보완
- ②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 ③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3. 로드맵의 구성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
ᅂᄓᄓᄓᄗ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공공일자리 창출	③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7
민가일자리 창축	④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⑦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역사리 식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맞춤형 알지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 4.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정·세제· 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 으로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 확립
-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
 - *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22년)
 -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17.下~)
 - *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17.下~)
 - 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 전면 개편
 -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18년),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19년)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 확충
 - *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직업능력진단·훈련시스템 마련, '18년)

< 공공일자리 창출 >

③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 확충
 -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충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금년부터 충원
 - *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 추가 충원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

< 민간일자리 창출 >

④ 혁신형 창업 촉진

- 창업활성화 및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 창업기업 5년 생존율('14년, %) : (한국) 27.3, (독일) 41.0, (영국) 37.5
-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 * (교수) 창업휴직기간 확대 대학평가시 창업실적 확대 (연구원·공공기관)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등 **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 인정
-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18.上)
 -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18.上) \rightarrow 민간금융으로 확산 유도
-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선순환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 *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 신기술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평가(벤처법 개정)

5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 구축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17.4/4)
 -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 으로 전면 개편
-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 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 ①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 ②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인증제 활성화, ③ 민관협업을 통한 규제애로 신속 해결
-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MICE·문화·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17.4/4)
 - *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광고허용, 전매제한 완화, 투자한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

6 사회적경제 활성화 (11페이지 참조)

-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
 -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분야를 다양화

기 지역일자리 창출

- o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新성장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강화, 기업·인재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
 -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여 역량 강화 등

-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17.4/4, 균특법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 * 클러스터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클러스터내 혁신 주체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
-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 혁신**('18년)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현장모니터링 강화, 지자체 역할 강화, 사업효율화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
 - * 도시재생 지역의 빈집:빈점포 공간을 활용한 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17년 320억)

< 일자리 질 개선 >

图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 그간 2년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 하는 방식으로 개편
-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18년~)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18년)

9 근로여건 개선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18년)
 - *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 마련('18.上)
-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여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여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 지원
 - *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 * 현재 시행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개편('18.上)
 -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18.上, 3→5%),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 확대 등
 - ⇒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 마련('18.1/4)
 -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달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
 - *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18.下, 임신·육아만 인정 → 가족돌봄·학업·훈련 등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18년, 1→2년),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17.9)
 - ⇒ 「여성고용 종합대책」 마련('17.4/4)
 - 신중년 근로자에 대해서는「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17.8.8, 제2차 일자리위원회)

4. 향후 이행계획

-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 기관장 통보, 일자리위원회 상정
-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완하여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

참 고

헤이그라운드 소개

- □ (설립) 헤이그라운드는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루트 임팩트가 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8층 건물로 '17년 6월 개관
 - * 헤이그라운드가 체인지메이커들을 위한 든든한 대지(Ground)가 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Hey)할 수 있기를 희망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에 기여** 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코워킹 커뮤니티 지향
 - * 2014년 1월부터 입주기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함께 준비
- □ (입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투자기관 등 **중간지원 성격의 기관** 등 41개소 입주
 - * 입주기업 중 빅이슈 코리아(노숙인 자립 지원 잡지)와는 '16.12.23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판매원으로 나왔던 인연이 있음
 - 입주기관에 회의실, 라운지, 폰부스, 촬영 스튜디오 등 **업무 공간** 및 **사무기기** 등 통신지원,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헤이그라운드 개요

- 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 나길5
- ② 운영기관: 비영리사단법인 루트임팩트
- ③ 설립목적: 소셜 벤처, 비영리단체, NGO 등에 저렴하게 업무공간을 공급하고 입주사간 협력기회 및 법률자문·재무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④ 입주기관: 소셜벤처 등 41개
- ⑤ 규모 및 구성: 지상 8층, 지하 2층 6,000㎡
 - · 2~5층: 10~100인 규모의 성장기 조직, 6~7층: 2~6인 소규모팀·스타트업 적합
- □ (성수동 소셜밸리) 산업환경 변화로 쇠락하던 성수동은 최근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과 문화예술가들이 모여 소셜벤처 메카로 성장
 - ㅇ 약 180여개 소셜벤처 기업, 3천여명의 청년 혁신가가 위치

□ 주요 입주기업

-ĤE	○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탄생한 예술 작품을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재생산하여 판매	500
Marymond	- 잊혀져가는 역사 이슈를 예술작품으로 재생산하여	
마리몬드	일상속에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역사의식 각인	
	○ 홈리스에게 잡지를 판매하여 합법적인 수익을 올릴	(FER)
ISSUE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한 노숙인들의 자조를 도움	0
빅이슈코리아	으로써 빈곤을 해체하기 위해 설립 🔭 📜	BIG
iii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을 발굴하고,	RAIN
ROOT IMPACT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DOUGH AN
루트임팩트	- 체인지메이커들을 위한 입주공간(헤이그라운드),	學企業
T=07=	셰어하우스(디웰)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	A control of
KOV	○ 캐시미어(몽골), 목재(인도네시아) 등 공정무역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	y column
11.5.71	-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지인 역량	
케이오에이	강화 및 커뮤니티 조성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형성	
	○ 청송 농가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여	
소년	친환경 맛집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앗간	- 도농간 안정적인 유통·판매망을 구축하여 농촌에는	P
소녀방앗간	안정적 일자리와 수익창출, 도시에는 건강한 식문화 지원	
5000000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페스티벌, 공공아트	WEYN
.oMee∪∩	프로그램, 예술 교육 등의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위누	-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소득 증진과 예술의 보편화·대중화 기여	11 11
9009	만지는 시계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판매	
	- 지역 소셜벤처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이원코리아	수익일부를 시각장애인 시설에 기부	
JUMP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들을 대학생/졸업생	- 10
001.11	교사들과 일대일 방식으로 매칭, 방과후 학습지도	1
점프	-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생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ROOT ENERGY 루트에너지	 일반 개인 누구나 소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발전수익이 돌아감으로써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에너지 생산 	
gongs!n 공신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동영상 강의 및 학습방법, 동기부여 콘텐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운영 빈부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개선하고 청소년 누구나자신의 가능성을 찾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उपयोगि
째깍악어	○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대학생 돌봄 선생님이 등/하원, 놀이, 학습, 그룹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어린이 돌봄 매칭 서비스 -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낀 엄마들이 모여 엄마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위해 만든 돌봄서비스	
lineable 리니어블	○ 미아·치매노인 등을 위한 실종방지 블루투스 밴드 제조 - 리니어블밴드 착용자가 스마트폰앱을 설치한 가족 으로부터 멀어지면 알람 발생, 주변 앱 사용자들의 도움으로(크라우드소싱) 가족을 찾음	Letable
ASHOKA Esergone A Changemaker* 아쇼카 한국	○ 뛰어난 사회혁신기업가들을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국제NPO 아쇼카의 한국법인 -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이 인도를 번영시킨 것처럼 세상을 변혁시킬 혁신가를 육성	
enûma 에누마	○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IT 서비스 제공 - 20개국(한·미·중·일 등) 앱스토어 교육/아동분야 1위, 자폐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플워치용 앱 개발	ELECTION CON AT THE BURNEY ELECTION ELECTION
♣ 두손컴퍼니 두손컴퍼니	 노숙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종이옷걸이, 컵 홀더 등 제품 생산으로 시작, 물품보관 및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에 착안, 물류업 진출을 통한 취양계층 일자리 창출 확대 	
D3 D3 D3Jubilee	 국내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혁신 기업을 발굴, 연계하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기관 단기적 재무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사회적 삶의 가치를 투자와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 조성 	Ra Delacer
Slowalk plasform for design and green 슬로워크	 디자인에 기반한 사고와 방법론으로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 월드비전 더소사이어티, 노란들판, 공공공간, 루트 임팩트, 동그라미재단 등 다양한 소셜벤처 및 비 영리단체의 디자인, 캠페인, 인포그래픽 등 수행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 (고용)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 (예)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 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 (작은영화관)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 운영 (21개소, 108만명 이용)
 - ** (베어베터) 발달장애인 198명 채용, 인쇄·제과·커피·화환 등 사업에 진출
 - (창업) 적은 창업비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다양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리스크가 낮음
 - * (내마음은 콩밭) 청년들이 대구지역 골목축제, 마을카페 운영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도
- □ 프랑스, 벨기에 등 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
 - 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비중도 평균 6.5%이고, 10%를 상회하는 국가도 있음
 - * 고용인구 중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15): EU(6.5), 프랑스(9.0), 벨기에(10.3)
- □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가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15)
 - o 금융,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진출분야도 제한적**

2. 새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 추진 *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 o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o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 3. 세부 추진과제 (1) 성장인프라 구축 ① [금융접근성 제고] 공적금융 확충, 민간투자환경 개선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 o 보증지원 한도(1→3억원) 및 보증대상 확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자활기업 포함) □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지속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21억원 → ('17) 230억원 → ('18) 400억원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18년 예산 100억원 → '19년 이후 추가반영 검토)

* 성장사다리펀드 내 (가칭) 사회투자펀드 조성('17년 300억원 → '22년 최대 1.000억원) 및

□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중이며 근거법 제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창업 7년 이내 제한 → 폐지) □ 신협의 출자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 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출자허용(신협법 개정). 협동조합 투자조합원제도 도입(협동조합기본법 개정) [2] [판로확대]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 강화. 인센티브 확대 □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 강화 o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국가계약법 개정) 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 상향**(1점→2점) □ 국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물품·용역 입찰시 가점 확대*(예규개정) 및 수의계약제도 신설** * (기존) 1.7점 → (개선) 2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대상(5천만원 이하) □ 구매실적 등을 포함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편 o '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락 개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연계 반영 □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유도 o TV 홈쇼핑 기획전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o 수출마케팅 지원대상 평가시 가점 부여 및 공동 해외진출 사업시
 - 13 -

우대선정·지원

③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청년창업기반 마련 등

-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기반 마련
 -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 구축
 -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17개), 시도·시군구 단위 공동체지원센터(70여개) 내에 개설된 지역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 o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체계 마련**
 - * (조합원) 학생·학부모 등, (사업활동) 매점운영·진로·방과후 학습 등

□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워사업** 확대
 - * 현재 3개 대학 semi-석사과정
 - **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비학위 과정 개설('19)

□ 청년 중심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재기 지원

-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
 * ('17) 3개소 → ('18) 6개소→ ('19(안)) 9개소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500→800팀)**하여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2년, 연 한도 5천만원)을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
- 금융·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④ [지원체계 구축]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

(2)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

□ 소설벤처 분야

- □ (현황)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업화를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 * (우주)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셰어하우스 운영, 22명 고용, 셰어하우스 57호(입주자 350여명) 운영
 - 다만,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도 낮아 소셜벤처 발굴·육성 미흡
 -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 (개선방안)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 활성화
 - o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Impact 투자펀드' 신설('18년)
 - o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
 - * 선정된 창업팀은 R&D자금(5억원), 사업화·마케팅(2억원) 등 최대 10억원 지원
 - o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하여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 제공
 - * 창업진흥원이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창업지원정보(104개 기관)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중('14~)

2 사회서비스 분야

- □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
 -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여성 중심으로 구성,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에게 간병·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303명 고용)
 - 다만,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 저조****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 차지
 - ** 참여율(%): 장기요양 0.5, 보육 0.1, 바우처 1.3, 장애인활동지원 4.1
- □ (개선방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 지정요건 완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촉진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유연한 적용
 - 아 사회적가치 항목 신설 등 바우처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기관 평가정보 수시 제공
 - * 정보제공 채널 확대(온라인→온·오프라인), 이용자 품질평가 실시간 제공 등
 - o 지역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신사회서비스 발굴 지원
 -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동으로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 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
 -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 (지원내용) 정책펀드·기금, 공동모금회 재원 등 연계 사업비지원, 교육· 컨설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등 행정지원 등
 - ** (예)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③ 주거환경 분야

- □ (현황) 사회적기업 등이 진출하여 주민참여, 취약계층 배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주거 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입주 확대 등)
 - * (두꺼비하우징 사회적기업)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10호점까지 개설
 - o 다만, 자금조달 기반 미흡, 사업역량 및 사업정보 등 부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적극적 참여에 한계**
 - * 최근 LH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기업형임대주택 계획이 최초로 선정(고양, 남양주 지구)되었으나 아직 활성화에는 미흡
- □ (개선방안)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 o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운영지침 마련)
 - *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 기업 출현 예상
 - 지역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해 **기금 융자 및 보증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
 - * (기금융자)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 완화, 토지담보 등 검토 (보증제공) 대출 원리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LC)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 검토

④ 문화예술 분야

- □ (현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
 - * 문화예술 분야 취업유발 계수(명/10억원) : (공연예술) 22.9. (산업평균) 12.9
 -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소를 운영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16년까지108만명 관람)
 - o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였으나, 문화 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정책이 부족**
 - * (사회적기업) '08년 11개 → '16년 238개(총 1,713개 중 13.9%) (협동조합) '13년 77개 → '16년 1,641개(총 10,640개 중 15.4%)

- □ (개선방안) 공공시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문화활동 지원
 - o 사업운영.공연 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 지자체의 유휴.공공시설 지원
 - * 서울, 대구 등에서 임대료 완화 적용(재산평정 가격의 5%이상→1%이상)
 - 아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
 -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비용 지원
 - o 정부,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유도

5 프랜차이즈 분야

- □ (현황) 협동조합등이 진출하여 본점·지점간 이익공유*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단점 보완
 - *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분쟁 소지가 없음
 - * (**와플대학 협동조합**)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 차이즈 운영, 지하철역사 와플매장 7개 등 전국 49개 운영
 - 다만,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나,
 진출분야 편중*, 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
 - * 외식업 73%, 교육ㆍ미용ㆍ세탁 등 서비스업 18% 등
 - 프랑스의 경우는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
- □ (개선방안)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상생협력 기반강화
 - o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
 - * 소상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
 - ** 시스템 구축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등 지원
 - o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

6 지역기반 분야

- □ (현황) 마을기업 등이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동네방네) 청년들이 춘천의 구도심 지역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마을 카페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위탁 추진 중
 - o 다만,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사업기반 등이 아직 미약
- □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 인적·물적자원을 활용 하여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o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 * **공공기관 인프라**(옥상·주차장 등) 활용 신재생 **발전사업 기반조성** 및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17.7월 개소) 기능 강화 등 적극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 인큐베이팅 · 금융지원** 등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선 고려**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 저수지 등 활용시 5.966MW(원전 6기) 용량 확보 가능(3만5천명 일자리 창출)
 -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 * 인증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 창출: ('16년) 1.446개 → ('22년) 2.046개
 - **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ㆍ육성, 관광ㆍ문화 등 업종 다변화 등
 - o 농·어촌에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가칭) 사회적 농업법」제정,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추진
 - * 어촌계 가입제도 개선 등 신규 어업인 어촌 진입장벽 완화 추진

- o 농협.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 확대
- (수협자금) 담보 및 신용대출 적격성 심사시 신용등급.자금용도 등을 별도로 고려하고, 우대금리를 적용
- (농협자금) '농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크라우드 편딩 활용 등을 통한 자금확보 지원
- (판로지원) 공영홈쇼핑 방영지원(수수료율 인하), 농협.수협 판매장 內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4. 향후 계획

- □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금융 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
 - o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

사회적경제 우수 사례

- 1.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
 - ① ㈜베어베터 (서울 성동구)



- o **발달장애인**에게 인쇄, 제과, 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지원
- 225명 직원중 발달장애인 80% 이상('16년) 고용,
 장애인들이 일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

	('14)	('15)	('16)
취약계층 고용(명)	80	136	198
매출액(억원)	17	30	46

② 카페 ㈜자리 (서울 은평구)



- o 위기청소년(소년원 출소생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 서울역, 어린이대공원 등 7곳 까페 운영
 -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무교육, 채용연계, 주거공간 제공
 - * 고용직원 30명(위기청소년 12명), 매출액 15억원
- 2.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 ☞ 협동조합을 통한 민주적 운영, 공정한 이익분배 등으로 임금·근로조건 등 개선
 - ① 한국택시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 o **택시기사**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법정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 근로조건 개선 등 **경영에 참여**
 - * 조합원 174명, 택시 76대 운영, 매출 65억원('16)
- 월급제 도입, 일반 택시회사 주주이윤 일부를 기사기본급 인상, 특별수당 등에 사용, 월평균 급여
 250만원(일반 택시회사 150만원)

②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서울 동대문구)



- o 종사자가 조합원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고용안정**, **직원복지** 실현
- o 협동조합 전환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본사-가맹점간 신뢰강화로 **사업규모 성장**
 - * 가맹점: ('13) 408개 → ('16) 552개
- 3.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낙후지역 주민에 돌봄·간병·문화 등 서비스 제공
 - ①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광진구)



- o 돌봄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결성, 자조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재가 시설 돌봄서비스 제공
- 어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수탁 후, 투명경영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요양보호사 처우 향상

	('14)	('15)	('16)
고용(명)	274	282	303
매출액(억원)	59	60	72

②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전북 장수군, 경남 남해군 등)



- o 지역가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개설
-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100석 규모의 영화관 21개소 운영, 108만명 관람('16)

	('15)	('16)
고용(명)	31	209
매출액(억원)	36	76

4. 다양한 세대의 사회혁신 참여 ☞ 학생, 시니어 등 여러 세대에 경제활동 및 사 회혁신 참여기회 제공

①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강북구)



- o **학교매점**의 판매상품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모, 교사, 학생을 주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 o 학생들이 조합원, 임원으로 사업체를 운영함 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 체험**

② 십시일밥 (한양대 등 전국 29개 대학)



- o 대학생 시민의식 성장과 취약계층 학우를 돕기 위해 설립('14년 소셜벤쳐 경연대회 대상)
 - 학생이 학교식당 **급식봉사**를 1시간하고, 그 **대가로 식권**을 받아 **취약계층 학우**에게 전달
 - * 전국 29개 대학, 누적 4,200여 학생 참여, 서울시 혁신상 수상(서울시민 삶을 바꾼 단체 2위)

③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서울 은평구)



- o 중장년·은퇴자의 인생2모작 및 사회적경제 참여를 위한 전직교육, 컨설팅, 플랫폼 제공으로 시니어 실업문제 해결
 - 시니어아카데미 수료생이 중심이 되어 결성, 중장년들 스스로 중장년의 문제를 푸는 협동조합
 - * ('15~'17) 은퇴자 61명 교육 → 37명 인턴채용 연계 → 12명 최종고용 연계

5. 선진국의 새로운 모델 ☞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신종 직업군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① 쿠페틱(Coopetic, 프랑스): 사업자고용협동조합



- o 홍보, 영상, 앱개발 등의 **프리랜서**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계약·세무·회계 등은 조합이 수행)
 - * 협동조합의 프리랜서 고용인원 : 150명('16)
- o **프리랜서**에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제공, **컨설팅·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지워**

② 스톡시(Stocksy, 캐나다) : 플랫폼 협동조합



- o 900명 이상 사진작가가 모인 예술가협동조합 으로 온라인 플랫폼인 **사진판매 사이트** 운영
- 사진작가는 공정한 수입을 얻고, 조합지분을
 소유하며, 경영에도 참여